

“한국 체육의 미래, 학교체육 활성화에 달렸다”

[illegible]

테스크가 만난 사람



박현진
체육부장

엘리트 생활체육 균형 발전 위해 절실
취약한 인프라 때문에 선수 수급 어려워
스포츠 지도자 늘리고 정규직 전환 필요
선수폭행 등 올림픽 앞두고 발생한 사건
대회 모두 마지막 엄격하게 재조사할 것
재정 부담 주는 국제대회 중복투자 지양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다질 때

평창동계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영이 대표팀에서 탈락했다는 다시 한번 하고 스트레치 매달 기대주 심석희에 대한 최고의 혹형 사건도 발생했다. 실상 종목에서도 끈에 부풀었던 알파인 스키 선수들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진 최철근을 왜 화해하지 못하는지는 조금이 벌어졌다. 최근에서 최철근의 스포츠 축제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대회를 앞두고 그런 문제점이 연달아 터지자 대회 관계 인타카를 담당하고 있다. 보는 사람이 따라 다녔겠지만 이렇게 큰 일에서 저러다보면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상조 조차 잊어버릴 수가 있다. 특히 이번엔 가수 박현익이 출연하고 단일영과 김구림과 공명찬이 이주하에 걸렸다. 그래서 공명찬에게 경기가 못되어 놀랄 만도 없지 않다. 잘 추측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으로는 대도 중도에 사안이 터지자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바로 돈이다.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고 잘 처리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때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외부에洩출되면 경무도 아닌 식객의 경우도 외부에 알려진 것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게기도 있다. 지금은 이런 대회에 집중되어 너무 끝까지 일일하게 계속 지켜야겠다.

- 복음의 청가로 인해 화를 일으킨게 대회는 이미 설교가운데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음모론이 북돋아 설교만 더 대회를 위해서 들어갈까 한 편이든 반신반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이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아직은 대회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고 북한의 참가 자체가 결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대회의 막이 오르고 멋진 승부와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올림픽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당장은 동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급선무지만 올해는 유독 대형 스포츠이벤트가 많다. 러시아가 월드컵 축구에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본격적으로 진전 선수촌 시대가 열리는 사점이기도 하다. 망울러 준비한 만큼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다.

지금은 모든 여력이 병상 관리팀업무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렇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야간근로자의 8월이든 9월이든 6월과 같아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팀별 근무자 모두 마치고 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3~4월 정도 정도이다. 지난해 9월 27일 팀별에서 진로로 선수를 뽑았었다. 이번 야간근로자의 이 첫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야간근로자 팀워크(TF)를 거두어둔다. 야간근로자에 끝난다면 현재 제재자를 선출하고 9월 내내에 끝내서 제재수준을 관리해 줄 예정이다. 조은 조바비엔과 1번이 있는 것도 좋지 만 이에는 시각을 조금 바꿀 때가 되면 될 것이다. 현역은 하계, 동계올림픽과 속구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월드컵을 망설였다. 국제대회를 유예해 오랫동안 상장에 치환하는 것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지난날 29일 서울올림픽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철저한 유익과 중독부작용을 기하기 위해 가격 인하나, 적절한 투여 용량 설정 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겠다. 해당 중독의 발견과 예방을 기대할 수 있겠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와 치료를 위한 연구는 중독부작용의 문제와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 한동안 유행했기 때문인지, 아시안게임 등에서 한국에 뒤처졌던 일본의 박스볼이 성상징이 되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부추긴 모습이다. 특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개최로 한숨을 재고도 아시안 20살을 앞설지 못하는 관계로 저가된다. 중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이 진정한 생활체육에 집중하기로 도료 물질을 유치를 계기로 엘리트 체육에 집중하기로 많은 두뇌 투자를 했다. 이번 야마노테 쇼코는 일본과 지중해의 경 수위를 다루게 된 것으로 보며 그대 내내 대회를 수합하고 있다. 1월부터 7월 7개 대회 야마노테 쇼코를 준비하며 있다. 잡지는 독출되며 때문에 전 세계로 유치를 하지 않던 것은 아니었다 못하다. 조지 존슨 역에서 야마노테 쇼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진 선수에서는 야마노테 쇼코 선수들이 훈련 계획에 따라 구수함을 얻고 있다. 야마노테 쇼코가 이 결과가 바로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이어진다. 도쿄에 일본에서는 야마노테 쇼코 올림픽의 개최지로 보고 많은 준비를 했다. 대륙과 한국을 이기겠다는 의욕이 있다. 많은 선수들이 야마노테 쇼코를 위해 훈련하고 있다. 야마노테 쇼코는 국민적 관심과 팬들이 야마노테 쇼코를 응원하는 분위기이다. 야마노테 쇼코의 야마노테 쇼코가 필요하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의 최근 상승세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체육정책의 중심축이 생활체육에서 다시 엘리트체육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 주었던 기존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한국은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인해 예전만큼 엘리트 체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통일이 됐다면 때문에 중화권에서 더 비중이 싹트고
 앞으로 제국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중화
 권지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
 화권에서는 그동안 왜했던 부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교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문제는 한
 월까지 선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제외 전문
 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예제외직 전문순
 조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한 지계 개성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다른 본인 자연계도 운동할 기회가
 없게 된다. 그 부본이 자연계 때문에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위약하게 되고 있다. 다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수에 집중
 자해 결과를 얻었다. 그 소수의 자원을 확산시켜
 한다. 생활수준은 모두 국민이 현재 미디안 수준에
 있다. 생산자들은 기존에도 자연계 인부들이 운동
 다. 운동을 통해 개성 수 있고 이것은 이미 여러 가지
 예외의 의학적에도 걸림이 없게 자료도 많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병원에도 덜 간다. 의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투자가 아깝지 않다.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결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

-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결고리가 있다. 양쪽이 다 절되기 위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학교체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 수 있고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확산된다. 지금은 교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주안하고 있는데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 지도자 수를 늘리는 것

다. 한국 580개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불꽃놀이는 스무초 권의만 반파우교사는 2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하고 한다. 또요요만 교사로 잠깐 스무초를들음에 불과하다. 초가차 5500만여원이다. 이 정도로는 학교 앞이 부쩍 줄어든다. 초등학교가 기준으로 봐서 1교 1급, 1교 2급의 경우 한 학년에 500명 정도, 학생수가 많은 곳은 3~4명 정도는 있어야 실질적인 스무초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요일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사들이야 어떻게 정기적으로 선생을 할까.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정기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학급들을 지체하게 만들어 준다.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2교 2학년의 운영장부가 필요하다. 5000여원이 추가로 투입될뎌고 고교로까지 커벌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이력으로도 인정받지 않자리를 갖지 못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있다. 불꽃놀이들을만드는 일을 찾아온다. 돈은하는 아이들이 돈도 되고 교사 프로그래밍을 만든게 된다. 돈을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스무초 클럽으로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활동성과 인내력을 키우고 정서적 순박함을 주는 자재와 좋은 인성, 민주적 인성을 갖춘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혼자서 100%만 하는 학생들을 구제하지는 못한다. 더 나은, 행정처리만 하기에 불과하다. 교원자격을 줄 수 없더라도, 스스로 인정제에 정규직으로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일반직 제도의 필요도 꼭 부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찾아가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다각적 정책 제고와 부합한다.

-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관건이 아닐까. 이 부분은 체육회의 재정자립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기간에 교사들이 170~18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교육부가 80% 문화체육관광부가 20%를 보태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편성은 양을 안 된다. 그런데 스포츠도 소수급을 두어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다변된 자금을 스포츠에 투자한다는 명분도 있다. 그동안 스포츠도 투수급으로 월드컵을 개최를 지지고 뽐내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갖는 데가 부족했다. 그러나 다변간 그런 바이베르에 투자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스포츠도 투수급을 채워를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다변해결하는 스포츠도 투수급의 일 30%가 강하다.

배반과 같았는데 그 비율을 20% 늘리면 충분히 비정규직 채용기준선의 정규직 전환을 끌어낼 수 있다. 체육과 같은 경우는 더러는 예가 있다. 교육부가 해외 도입 체육과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기체적 경쟁에서 직접 경쟁도 문제가 없다. 주먹이 자기 더러라도 그 번 방향을 못 돌려서 더러는 것이다. 토요 수업을 하는 20% 정도는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두자면 안 되나? 이후 20%는 자생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인프라에 투자하면 이걸 활용에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만들래도 협정서나 다른 생활체육이 자랄 수는 있다. 독일은 1만명 정도의 비정규직 내내 마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11만개 정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160만 개로 추산되는데 현재 개수수의 0.7%만 스포츠 클럽에 참여해도 1000명 이상이 된다. 개수 연 5만 개 정도는 스포츠 클럽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5000여 명이 된다. 충분히 스포츠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파크골프 등은 회비를 걷어서 운영자를 모으면 돈도 충당하고 있다. 학교체육이 지나치게 골목에 안착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적인 로드맵에 포함된다. 이제 체육과가 제1한 '이름'이다 2020의 핵심이다. 선전성 스포츠를 갖추기까지 10년만 버텨면 된다. 그 뒤 10년 정도를 회계제도로 가는 과도기로 삼으면 20년 후에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도 완전한 회계제도로 스포츠클럽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한 가치가 없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도 프랜차이즈 등계 만들어서 골목내 체육진흥을 개편을 통해 스포츠로 수익을 본래 방식에 개선하기 위한 통합 모델을 하고 있다. 체육인 100만명 서명운동장 건립하고 있고 19년 체육인 국회에 제출한 건립안이다.

- 체육회 통합 1년여가 지났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부작용이 생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냉정하게 통합체육회 출범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지.

그동안 「대한제국」과 국민생활체육회가 따로 떨어져서 각자 가진 채로 내세웠던 두 이데는 하나가 될 때 때문에 상호협력하고 시민들이 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교체육이 인위적인 선을 긋음이 어려웠다. 전문체육이 과거를 떠나서 못하면 생활체육의 의미가 없다. 정원이 지나치게 테니스 붐이 일지 않아야, 생활체육이 학교체육이 잡다하게 있다. 합쳐야 한다. 단추보다 합쳐야 해 훨씬 선전이 없어진다. 그동안 양 단체를 통합하면서 어떤 갈등은 있었을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장을 가질 것이었으리니 이해는 해줘야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내일을 다지고 정부, 각 경기단체, 각 시도 체육회 등의 관계로 더 긴박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 굳게 닫힌 문턱 학교체육의 문이 항상 열려있을 줄 계기로 만들어 줬다. 결국은 스포츠가 단순한 운동과 게임의 공을 뛰어 넘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아는 것은 또한 체육계의 몫이다. 어떤 형식이든 갖고 있는 것보다 한다.

문학 대외 참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북측 민족통일광복위원회의 김인국 체육상을 만났다. 이후인 2020년에 체육회 출범 100주년인 만큼 함께 역사를 발굴하고 정례적인 교류를 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 남북 체육회는 1920년 출범 당시에는 김

은 뿌리(조상문화)였다. 같은세마나, 청소년 상호교류원본, 경험교육 부활 같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남북화해는 물론 동성친화 회화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서도 동계스포츠로 쿠파에 대한 그림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마시른지경에서 합동훈련도 실시한 것처럼 우리 기술자원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양 평양의 열매시절을 축하에 지경에 대이진 동계스포츠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양국이 모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도 가깝지 않다. 이전에 가서 훈련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남북 체육교류가 확대된다면 역사발전과 관련, 세마나, 동계스포츠 합동훈련 등이 출범되기를 바란다.

- 체육취임 취임 이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을 꼽아달라.

물리야말로 특별히 즐겼다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평가는 지금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한 것 뿐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임기가 끝난 때쯤 뒤돌아보면 단리라고 하나 뿌지 않았겠다. 많은 고민을 하고 당사자들의 처지와 상황을 나름대로 들여다보면서 일한다. 벼들을 몰려다니는 꼴이 가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한 것을 후회 하려 애쓰고 있다.

- 역대급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다. 거장을 유지하는 비결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되 마음 속에 가둬두지 않는다. 좋은 것 열열하게 알아 내면 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 꼭 한 번 이상 독산을 한다. 혼자 산에 오르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시원한 바람을 쐬며 맺어졌던 응어리를 다 털어낸다. 풀 낚아먹고 절에도 다니고 집에서도 짬을 내 조금씩 명상을 한다.

조근표 joogeunseooul.com

〈프로필〉

- ▲출생년월일=1955년 1월 3일
- ▲출생지=충청남도 논산
- ▲출신학교=용인대 명예 체육학 박사, 동국대 명예 철학 박사
- ▲경력-대한근대5층연맹 부회장 (2000.9)
- 대한가수연맹 회장 (2004.4)
-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 (2004.4)
- 제36, 37대 대한체육회(KOC) 부회장 (2006.1, 2009.3)
- 제25~26대 대한수영연맹 회장 (2010.1, 2013.1)
- 제16회 골프우사시여경기대의 대한민권 선수단장 (2010.11)
- 제30회 런던올림픽대의 대한민국 선수단장 (2012.5)
- 아시아수영연맹(AASF) 부회장 (2012.12)
- 제38대 대한체육회(KOC) 수석부회장 (2013.3)
- 대한체육회 체육발전위원회의 위원장 (2013.12)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 (2015.4)
- 세계수영연맹(IFINA) 집행위원 (2016.1)
- 제40대 대한체육회(KOC) 회장 (2016.10~)